

개호노인보건시설 시다워크 Cedar Walk

김 상 길
Kim Sang-Gil



1. 시설개요

1.1 개요

명 칭 : 개호노인보건시설 시다워크(cedar walk)

개 설 일 : 2004년 10월 1일

개 설 자 : 의료법인재단 河北總合病院 理事長 河北
博文

주 소 : 東京都 杉並區 三丁目 4番 9号

<http://www.kawakita.or.jp>

사업 내용 : 개호보험시설 서비스 112병상(전체개실)
개호보험 데이케어 40명/일

1.2 시설서비스

1) 장기재원(long stay): 재활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동작의 훈련을 시도하며, 재활후 재택생활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서비스 내용 : 회복기에서부터 유지기까지의 재활재택 복귀 및 일상생활을 위한 재활 식사 입욕 배설 등의 간호 개호 서비스 진찰 투약 주사 처치 등의 의료 서비스 오락 등 일상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의 제1호피보험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제2호 피보험자로 개호상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단기재원(short stay): 가정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개호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한다.

서비스 내용 장기재원과 동일

대상 ;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로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거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2호 피보험자로 특별질병으로 인해서 지원이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3) 데이 케어(day care); 가정에서 요양 중언자로 이동, 식사, 목욕, 재활 등을 할 수 있다. (통근 재활)
 대상 ;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로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인정된 자
 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2호 피보험자로 특별질병으로 인해서 지원이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운영상 특징

2.1 개호노인보건시설

본 시설은 시설명이 ‘개호노인보건시설’로 병원과 주택의 중간단계에 있는 케어센터이며, 특별양호노인시설보다는 덜 심각한 상태에 있는 노인들의 요양과 재활을 위한 시설임. 즉, 병원에서 회복기의 노인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정복귀를 전제로한 재활과 치료를 받으며 이곳에서 치료가 끝나면 집으로 복귀함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복되어서 집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노인은 만성질환이나 식사를 위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환자(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노인환자가 무의식 상태에서 호스를 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옆구리에서 위로 직접 주입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임), 당뇨, 투석 등의 환자들이 있다.

사망자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나. 개소한 지 2년 반동안 3명 사망. 사망전에 대부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별도의 사망자의 사체를 위한 공간은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요양실이 개실로 되어있으므로 각 개실에서 사망시의 여러 절차들을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1) 시설 근무자

- 의사 1인 -항상 상주
- 간호사 -항상 상주하며, 개호인과의 비율이 1:3 정도임.(법적)
- 재활 -운동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를 수행하며 휴일에도 근무
- 개호 -재원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관리한다. 환자와의 비율은 1:1.7
- 상담자, 영양관리 담당자, 시설관리자(operator), house keeping 등

2) 층별 입실과 활용

- 1층 데이케어(정원 약 40명)

- 2-5층은 개호보건시설 (정원 112명, 층당 28명 이내). 방이 비면 단기입소로 활용함.
 - 거주단위별이라기보다는 층별 완결적인 구성을 함.
 - 현재 이 시설은 40여명 정도가 대기
- 목욕탕은 층별로 있으며,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한명씩 목욕함으로써 집같은 환경을 유지하려하며, 이를 통해서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담고있다.

2.2 지역사회와 시설의 연계

이 시설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특징은 지역과 밀착되어있는 운영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식당의 개방 등으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재원자와 지역주민이 만나게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공간적 배려는 찾기 어려웠다. 시설 관리자는 초기에 본 시설내에 스타벅스 커피샵을 두려고 하였으나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실현시키지 못한 것을 아쉬어하였다.

2.3 기타 운영상의 특징

엘리베이터는 청결과 오염용 엘리베이터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세탁은 가족들이 방문하여 처리한다. 시설 내에 세탁장이 있어서 직접 세탁을 하기도 하고 외부에 의뢰하기도 한다.

개호인과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시설적 성격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는다. 유니폼을 입지 않기 때문에 개호인이나 관리인이 쉽게 눈에 띠질 않는 점이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러한 섬세한 배려는 눈여겨 볼 만 한 대목이다.

3. 건축적 특징

본 시설은 개호보험법령의 개정으로 유닛케어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개원한 시설로 유닛케어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완전한 유닛케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설이다.

대지는 구 닛산자동차부지 끝단에 건립. 이 부지는 공영임대아파트, 분양주택, 수퍼, 재해시 사용할 수 있는 재해공원 등이 들어서 있으며, 일부 대지는 녹지로 남겨두어 양호한 주변 환경이며, 건축가는 현상공모를 통해서 본 설계안을 제안하였다.

전체 개실은 1인실로 구성되어있으며, 대지가 협소하여 1개층에 28bed가 배치되어 있다. 유닛을 설정하기 위한 영역에 대한 구분은 도면 상에는 7개 개실단위로 표시하고 있으나, 코어로부터 각각의 유닛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용의 통로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적으로 7bed단위의 유닛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물리적인 시설 혹은 장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각 7bed마다 전용의 식사코너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닛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겠다.



그림 1. 요양실

식당 이외에도 2개소의 재활과 담소 공간과 2개소의 식사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6개의 커뮤니티 공간이 중복도로 된 평면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공용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구성 방식은 처음 계획할 당시에는 유닛 시스템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하였으나 규정의 개정으로 이에 대응하여 새롭게 변경한 경우로 각각의 커뮤니티 공간이 유닛의 실제적인 중심공간으로 작동하기에는 공간환경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1층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된 식당공간을 볼 수 있으며, 진입 로비의 천정은 천정화로 본 시설의 성격을 건축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다. 원형으로 우물천정을 만들고 추상화를 그려 넣었는데 화가가 미리 그림을 그려서 붙인 것이 아니고 천정이 완성된 후 천정에 그려넣은 그림으로 이 시설을 설계한 건축가가 상당히 자부심을 갖는 부분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림 2. 1층 로비

특히 진입시 로비 좌측에 개방된 형식의 주방은 전체 시설이 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입구에 마련된 조그마한 차를 마시는 코너과 더불어 안이 다 보이는 주방은 본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식을 보여준다. 특히 주역사회에 밀착하기 바라는 생각으로 마련된 차 코너와 개방된 식당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3층과 옥상층에 마련된 옥상정원은 본 시설의 좋은 옥외공간으로 재원자에게 좋은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자들이 노인이며 대부분 실내에서 앉아서 외부를 바라 본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접근방법이나 시선의 처리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남는다.

외관은 이 지역이 도쿄의 비교적 부유한 지역이어서 호텔과 같은 이미지를 의도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이 시설이 임시적으로 머무르는 장소임을 의도한 점과 지역에서의 고급스러운 시설임을 의도한 것이 포함된다. 외벽에 경사진 돌출 창은 전체적으로 시설의 성격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외관의 엑센트로 적용했다는 건축가의 설명으로 시선의 유도나 내부 확장된 기능을 의도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아이디어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내부에서는 공간이 확장되어 보이거나 창의 하부를 접는 침대를 넣어두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가능성을 의도하였으나 가능하지 않았음을 건축가는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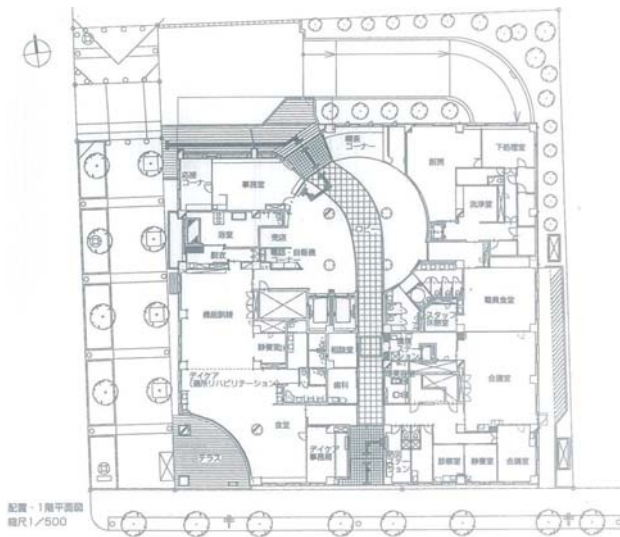


그림 3.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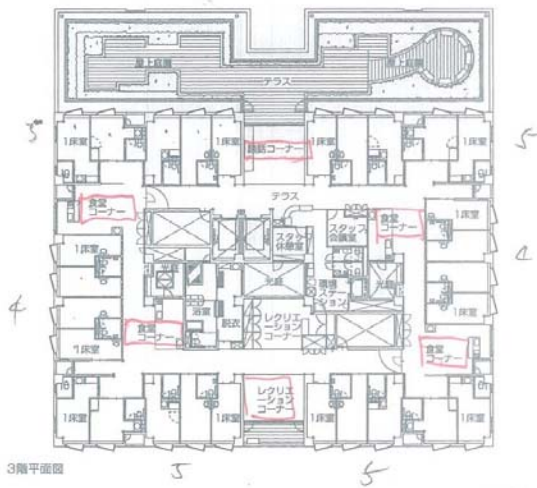


그림 4. 3층 평면도